

섬, 접경지역「살맛 나는 곳」탈 바꿈

행안부, 「찾아가고 싶은 섬」등 20곳 선정

경기도 용인군 덕적도가 '나그네 섬'으로 조성되고, 제주시 우도에는 '할소리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또한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대화리는 '두루미 평화마을'로 탈바꿈한다.

행정안전부는 '찾아가고 싶은 섬'과 '평화생태마을'(접경지역) 각각 10곳씩 20곳을 선정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250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선착장 등 하드웨어를 강조해 온 종전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각각의 섬과 접경마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

와 어메니티(amenity,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쾌적함) 자원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시켜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

주요 개발방향은 먼저, 지역적 특성과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 등을 활용한 핵심테마를 도출해 새로운 관광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용진군 덕적도는 서포터 해수욕장과 밭지름 해송숲길, 갈대습지, 능동자갈마당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섬둘레길 조성, 능동습지공원, 벗개호수공원 등 '나그네 섬'을 조성한다.

제주시 우도는 전체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연계한 "할소리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철원군 대마리에 "새의 귀족"이라 불리는 두루미와 독수리 등 철새 도래지역과 노동당사, 월정역, 평화전망대 등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두루미 평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완공까지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섬·접경지역만이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 환경의 보존과 개발에 기여하면서 관광객과 주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 및 경관디자인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신속보다는 기존 건

물의 리모델링을 장려하고 자연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는 한편, 관광객과 주민이 서로 어울려 감동과 재미, 체험과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섬·접경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특성과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휴양과 체험, 먹을거리 등의 테마를 발굴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등 주민지원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을 아끼는 국민들의 애정이 필요할 때"라며, "너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자주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화물공제조합 2011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



청일 기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응모가 제한된다.

화물공제조합이 시행하는 장학사업은 성적위주로 선발하는 타기관과는 달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경제사정으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화물운전자 자녀들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화물업계의 대표기관으로서 상생을 중요가치로 하는 화물공제조합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결과이다.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함께하고자 노력해 온 화물공제조합은 장학사업, 불운전자 돕기 등의 복지를 통해 조합원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업계를 대표하는 공익사업자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2011년 하반기 장학생은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화물공제조합 시·도지부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물공제조합 홈페이지(www.truck.or.kr)를 참고하거나 화물공제조합 기획부(3483-3730)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회장 김옥상·사진 오른쪽)은 지난 13일 화련회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2011년 상반기 장학금으로 505명에게(고등학생 167명, 대학생 338명) 4억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동안 1,268명에게 901,595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매년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2011년에는 최초 사업규모의 23배에 해당하는 910,000천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화물공제조합에 자동차공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차주, 운전자, 조합원사 직원(등기임원 제외)의 자녀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녀이며,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과거 화물공제조합 장학생 선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그 형제자매, 2010년, 2011년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휴학생 등 신

장학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을 응원하고, 화물공제조합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환원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복리와 공제조합과의 일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작했다.

화물공제조합의 장학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을 응원하고, 화물공제조합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환원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복리와 공제조합과의 일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작했다.

시내버스 노사분규 단락

운전 12만원, 정비 11만원, 관리직 10만원씩 각각 지급

서울시내버스 종사원의 임금인상을 놓고 노사분규가 야기되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의 조정으로 일단락 됐다.

서울지방 노동위는 지난 14일 조정위를 열고 그동안 사용자 측은 현행임금에서 2%인상, 노조측은 7%인상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 왔

나 운전기사 월 12만원, 정비사 월 11만원, 관리직 월 10만원으로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명령을 내렸다. 이밖에도 오는 2013년 2월부터 종사원의 정년을 60세로 적용할 시기로 해 단락된 것이다.

또 운전기사 정년은 오는 2013년부터 60세로 연장키로 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김유중전무이사 유임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지난 10일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김유중 전무이사의 임기를 지난 1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임하기로 의결했다. 김전무는 이로써 지난 1999년 5월 1일 이후 5회 연임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해양환경 학생 사진' 공모

접수기간 7월25일~8월 26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부터 '깨끗한 바다 만들기' 의식을 담아 해양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해양환경 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사진 공모는 미래세대들이 끌어갈 주역인 초·중·고등생 및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환

경 사진 공모전으로서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세부 주제는 '해양쓰레기의 피해', '해양환경의 풍요로움',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응모자는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koemcontest.or.kr)에

접속하여 응모작품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8월 26일 까지이며 접수기간은 7월25일~8월 26일이다.

국토해양부는 많은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공모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촬영하여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기간을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늘렸다.

응모작품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주제의 적합성 및 참신성 등을 평가하여 총 69점의 입상작품을 선정, 9월 1일 공모

전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로 나누어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0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대학부 최우수상 1명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입상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상식 행사장에 전시한다. 또한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장 등 해양 관련 각종 전시회를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2011경주엑스포, 휴게 편의시설 대폭 확충

식물터널 파고라 실개천 평상꽃탑 조성 등 시설정비 '한창'



오는 8월12일부터 10월10일까지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는 경주엑스포공원이 엑스포를 50

여일 앞두고 휴게,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행사장 시설 개·보수 등 정비작업이 한창이다.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편의를 돕고 자기반사시설을 비롯한 휴게 편의 조성시설을 중점 정비하고 있다.

행사장 주요 동선에는 울레 엑스포 주제(천년의 이야기·사랑, 빛 그리고 자연)와 어울린 꽃탑과 식물터널, 야생화동산, 시원한 친수공간을 조성해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제 분위기를 고조될 수 있도록 연출할 계획이다.

경주타워 좌우로 조성된 '신라왕경숲'에는 소나무·느티나무·생강나무 등 100여종의 수목 2만5천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올해는 여기에

다이팜나무, 사철나무, 섬잣나무 등 36종 4천여 그루의 조경수를 추가로 심었다. 관람객이 자연 속에서 더위를 식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엑스포공원 정문 주변부터 경주타워 가는 주 이동로 옆에는 폭 1.8미터, 길이 160미터의 '실개천'을 만들고 있다.

휴게시설도 예년 엑스포 때와 비교해 크게 확충된다. 공원 내 평의자, 등 의자, 자연석의자, 그늘막 등 400여개의 편의 시설물을 보수 및 교체하고, 엑스포문화센터 앞 '천마광장'과 음악분수대인 '곡수원' 등에는 햇빛가림을 위한 파고라와 평상이 40여개 추가 설치된다.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오는 8월12일부터 10월10일까지 '천년의 이야기·사랑, 빛 그리고 자연'이란 주제로 공연, 전시, 영상분야에서 100여개의 행사가 펼쳐진다.

당신의 귀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과 제주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투표가 진행중입니다.

전 화 투 표 001-1588-7715 "삐" 소리 후
 제주코드 7715를 눌러주세요
 인터넷투표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조

UNESCO가 인증한 3관왕 제주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도록
 지금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합시다.

2010년 한해동안 제주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